

판교 2테크노삼거리 좌회전 깜빡이 115m로

성남 교통난 해소, 셔틀버스 임시 승하차 구간 조성

2027년 경부고속도로 ex-HUB 판교 정류장도 설치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테크노밸리 ‘교통체증 해소’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단기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시흥사거리의 분당~내곡 방향 진출로에 대한 신호 운영을 개선하고 제2테크노밸리 입구 삼거리의 좌회전 대기 차로를 기존 35m에서 115m로 대폭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판교 지역 교통개선 종합대책 중 일부다. 시는 2028년까지 도심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부터 고속도로 연결로 신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교통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달까지는 대왕판교 톨게이트

(TG)에서 금토동삼거리까지 이어지는 달래내로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대왕판교로 2개소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출퇴근 수요를 고려한 셔틀버스 임시 승하차 구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중기적으로는 광역교통 연계를 본격화해 △2026년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로 신설 △2027년 경부고속도로 ex-HUB 정류장 설치 △2028년 서판교 연결로 개설 등 고속도로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달래내로 확장 2단계 사업(740m 연장)과 시흥사거리 인근 여수대로 방향 우회전 차로 확장도 병행된다.

장기적으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출 램프 신설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등



기존 35m에서 115m로 대폭 확장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구 삼거리 모습.

이 검토 중이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한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매일 4회 순회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 접수 시 수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달래내로 △제2테크노밸리 입구 삼거리 △금토동 삼거리 등 교통량이



성남시

집중되는 주요 지점의 신호주기를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해 내부 진출입의 흐름을 개선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부에서 운행하던 9개 노선 83대의 버스를 13개 노선 120대로 증편했다.

시내버스 S2번·351번·서울07번(출근형)·서울07번(퇴근형) 등 4개 노선을 신설하

고 이용률이 높은 55231·315번 및 마을버스 87번의 배차 간격을 단축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교통대책 전략(TF)팀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입주기업 근로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우상혁 뛰는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3억 원 확보

문체부 공모사업 신청 7개 종목 전액 받아

“조정·검도 등 대회서 좋은 성과 거둔 결과”

용인특례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3억988만 원의 운영비를 확보했다.

2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민간 운동경기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번 공모 결과 전국에서 63개 단체 306개 팀이 선정됐다. 경기도에서는 5개 단체 38개 팀이 선정됐다.

용인시는 신청한 7개 팀에 지원금 전액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가 신청한 팀은 육상·조정·검도·불량·태권도·유도·씨름 등 7개 종목이며 모두 58명의 선수가 지원을 받게 된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국내외 전지훈련·훈련장비 구입 및 각종 대회 출전 경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올해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구미에서 열린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대한민국 남자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를 기록했다.

우 선수는 올해 출전한 5개 국제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같은 대회 남자 세단뛰기 결선에서는 용인시청 소속 유규민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26일부터 31일까지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25 아시아실내조정선수권대회’에선 박지수·이상민 선수가 2000m 2인승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U-23(23세이하)부문에선 이정주 선수가 2000m와 500m 1인승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시 조정팀은 2000m 4인승 단체 종목 금메달과 함께 경량급 4인 단체전 릴레이 종목에서 은메달을 따내는 등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서 신청한 지원금을 전액



이상일(가운데) 용인특례시장이 29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제26회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세단뛰기 동메달을 거머쥔 유규민(오른쪽) 선수와 남자 높이뛰기 최진우 선수를 만나 격려했다. 용인특례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면서 각종 대회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시는 소속 선수들이 금지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용인을 빛낼 수 있도록 계속 적극 지원할 것이며 우수한 체육 인재들도 발굴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인천경제자청, 2040년 AI 스마트도시 완성 향해 첫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난달 29일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시 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인천경제청

설계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인공지능·데이터 구축 등 논의

를 적극 활용해 AI 기반 교통 안전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기반 맨홀 관리, 군중 밀집도 분석, 현장형 엣지 AI 기기(로봇, 드론 등) 등을 통해 지능형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품(POOM)플랫폼고도화 방안, AI 학습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이를 통해 인천경제청은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 기업

성장 지원 체계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POOM’은 영어로 Platform, Open Data, Open Living Lab, Make Value의 이니셜을 따서 만들었다. 플랫폼 기반 오픈 데이터를 활용용 실증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재창조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스마트도시서비스 2단계 구축사업 용역은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이후 단계별 구축과 실증을 거쳐 204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원석 청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스마트도시 인프라와 서비스 전략을 점검하고 민간·공공·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반 도시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경기도, 수원 등 5개 노선

7월부터 ‘현금없는 버스’

경기도가 7월1일부터 ‘현금없는 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관리 효율화와 배차 정시성 확보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7월1일부터 도내 4개 시 5개 노선을 대상으로 ‘현금없는 버스’ 시범 운영한다. 대상은 고령층이나 외국인 관광객 등 현금 사용자가 적은 광역버스(시흥)3302·3202(수원)7002(화성)6012(양주)8300번 등 5개 노선이다.

도는 현금 사용자의 혼란이 없도록 6월 초부터 미리 해당 노선의 차량과 정류소에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 등을 붙이고 경기버스앱 등을 통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교통카드를 분실했거나 오류가 있으면 현금 납부 대신 버스 내 비치된 요금 납부안내서를 통해 계좌 이체하면 된다. 아울러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HE 경기패스-G-PASS 등 카드발급을 안내함으로써 교통카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완해 대상 노선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인천, 농특산물 유통소비 대책

이달 네이버·SNS 등 판촉 행사

인천광역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 농특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인천시는 농특산물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및 판촉·홍보 강화 △해외시장 개척 강화 △전통주 산업 육성 및 판로 확대 등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45월 마지막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인천터미널역에서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6월에는 상상플랫폼, 10월에는 인천시청 애플광장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오픈자연 입점업체와 전통주, 김치업체 등의 인천·를 신규 입점을 추진 중이다. 6월에는 네이버스토어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천관’을 신설하고 판촉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를 통해 강화·옹진군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오산시 ‘제12회 야맥축제’

26곳 참여 5~7일 팍팍

경기도 오산시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오색시장 일대에서 ‘제12회 야맥축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모두와 함께하는 With~ 야맥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 브루어리와 지역 상인, 참가자, 공연팀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문화축제로 기획됐다.

야맥축제는 전국 26개 브루어리가 참여해 300여 종의 수제맥주를 선보이며 먹거리 부스와 플리마켓, 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어우러져 오색시장을 축제의 중심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올해는 그동안 행사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거리까지 무대를 확장해 침체된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축제장은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관람객이 직접 꾸미는 대형 설치물과 거리 예술 요소가 더해진 ‘참여형 공간’으로 변신한다. 상가별 스탬프 투어, 로컬 소상공인 홍보존 등 상생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며 지역 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형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6일 현충일에는 국군장병·경찰·소방관 대상 감사 이벤트가 마련된다. 신분 인증시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이런제 오산시장은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살리고 오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철희 기자 och@skyedaily.com



오산시가 전국 최대 수제맥주 행사 ‘제12회 야맥축제’를 연다. 오산시